

데스크시각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서울시립극단의 '함익' 공연 소식을 들었을 때 귀가 솔깃했다. 작품 모티브가 된 셰익스피어 '햄릿'이 어떻게 변신했을까 궁금해서였다. 드디어 지난 4월, 서울 출장 중 관람한 '함익'은 흥미로웠다. 보성 출신 김은성이 희곡을 쓴 '함익'은 서울 재벌가의 딸 '함익'과 그녀의 분신을 등장시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울을 활용한 무대와 조명은 단출하지만 임팩트가 있었다. 희곡은 물론 연출과 배우의 힘을 느끼며 "고전이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구나" "예술가의 상상력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새삼스레 생각했다.

며칠 뒤, 광주시립극단의 '달빛 결혼식'을 관람했다. 극단 예술감독이 대본과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1989년 초연된 '우털은 하얀 기러기'가 원작으로 영호남 지역 갈등과 5·18을 소재로 했다. 공연을 보기 전 '지금' 영호남 지역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우뚱하기도 했지만 뭔가 새로운 해석을 기

나는 '브랜드 공연'이 싫다(?)

대하며 작품을 감상했다.

하지만 공연 내내 작잡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두 시간 동안 강의하듯 직설적인 대사가 이어지고, '개그 콘서트'에나 등장할 것 같은, 지역감정 관련 낱은 에피소드들이 나열됐다. 1억 8000만 원의 제작비는 모두 인건비로 쓰였는지 무대 세트·조명·의상은 구태의연했다. 이 연극이 초연된 1980년대 후반과 그 즈음에는 분명 '의미 있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전의 작품을 '지금' 다시 무대로 불러낼 땐 '시대를 관통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 시절을 경험한 나 같은 이에게는 이미 낡은 것이 돼 버렸고, 지금의 젊은 관객에게는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이야기가 3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호출될 이유는 없다.

30년 만에 호출된 지역감정

팝플릿에 실린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사처럼 "다행스럽게도 광주와 대구가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달빛동맹을 맺어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교류로 시작해 시대정신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시절이다. 마침 공연 날은 광주에서 대구 2·28 항쟁을 상징하는 '228년 시내버스'가 달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대구에선 오래 전부터 518번 버스가 운행 중이다.

물론, 지금 지역감정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작품에서 언급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통용되는 시대는 지났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시립극단 예술감독이 '달빛 결혼식'을 광주 브랜드 공연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시립극단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인가 묻고 싶어졌다. '광주'를 소재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공연'이 될 수는 없다. 아주 대대적인 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칼럼 제목 '나는 브랜드 공연이 싫다'는 광주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10여 년 전부터 즐기자게 언급되어 온 '브랜드 공연'은 소재와 주제가 작품을 짓누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술적 상상력이 발휘하는 성취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의 브랜드 공연은 천편일률적이다. 5·18, 아니면 정을성이다. 솔직히 13년간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정을성의 문화 브랜드화 작업 성과에 대해선 지극히 회의적이다.

광주는 2018년 5억 원, 올해는 18억 원을 투입해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억 원이 투입되는 창작 권역약 사업은 공모전 개최와 음악회 그리고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등이 기대성 곡 '민주'를 연주하는데 쓰인다. 13억 원이 투

입되는 뮤지컬 작업은 답보 상태다. 12월 갈라 공연, 내년 5월 공식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제작사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당연히 대본과 작곡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어 작품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

5·18 코미디극은 어떤가

광주시가 강조하는 '광주다움'은 시정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게 가장 좋다. 광주다움, 브랜드화에 경도돼 '끼워 맞추기식'으로 제작되는 작품은 생명력이 없다. '광주'라는 소재에 매몰되면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 작품의 등장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얼마 전 부산발(發) 창작 뮤지컬의 서을 입성 소식이 당연히 '부산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했다. 의외로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돼 2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1970년 미국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1976 할란 카운터'였다. 연출자의 변은 이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 정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2020년은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다. 솔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5·18 코미디극'이라는 발칙한 상상을 해 본다. '진정성'이 꼭 엄숙함과 무거움만을 동반하는 건 아니지 않나. /mekim@kwangju.co.kr

社說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차단 대책 서둘러라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인조 잔디 혹은 우레탄 운동장에서 또다시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돼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지역은 유해성 검사를 내년으로 미뤄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 인공 구조물이 설치된 광주 시내 32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학교에서 호르몬 작용을 교란해 생식 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광주체육공 우레탄 육상 경기장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 이하)보다 훨씬 높은 0.99% 검출됐고, 대촌중학교의 인조 잔디와 우레탄 농구장에서도 각각 0.14%, 1.95%가 나왔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2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고 친환경

마사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에서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되면서 전남 지역 학교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유해성 검사를 내년이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조례'가 지난 4월 공포돼 최근예야 전체 827개 학교 중 181개 학교에 인조 잔디가 설치된 것을 폐기했지만, 향후 우레탄 시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유해성 검사나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은 내년 초에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중금속 우레탄 운동장' 파동 이후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타령만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교육 당국은 예비비 투입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유해물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쾌적한 환경'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난해엔 폭염이 참으로 기승을 부렸다.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 같다. 광주는 이미 숨막히는 삭막한 도시가 된 지 오래다. 한여름이면 온도가 치솟아 '캥프리카' (광주+아프리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런 답답지 않은 변화를 그대로 두고 가지 않겠다. 광주시가 오는 2027년 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나선다고 한다. 우선 도시공원, 시설녹지, 가로공간,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3299곳에 1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또한 민영 아파트 위주로 택지개발 시 조정 식재 면적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지에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이 는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미세먼지·열섬 저감 효과가 큰 나무를 주요 수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논지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마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사회를 안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경제 보복으로 대하듯 자기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였다. 강항 선생에 의한 일본 유학의 전수 사실이 제자인 왜승 후지와라 세이카(藤原盛高)의 각종 문집과 강항 선생이 일본에 남긴 강항 휘초 21권의 발문 등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고 자기를 스스로 연구 발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일본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서로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과거를 청산할 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無等鼓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사라질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됐다. 이곳 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8.5km 구간에 3~4년생 메타세쿼이아 묘목이 심어진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명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겨울철이면 차랑 미끄러짐 사고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는 악명 높은 구간이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메타세쿼이아를 베어 내기로 한 것은 이때 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바로 옆에 메타랜드 입장료

했다. 매년 평균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 도시의 골들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산소를 공급해 주고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가 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특출한 역할을 한다. 산림청의 분석 결과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면서 1.8t의 산소를 방출해 대기를 크게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 숲 1ha는 오염물질 168kg을 제거하고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추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시의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급격히 늘어나는 아파트들로 인해 햇빛 도시가 된 광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다. 매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 심기로 결심을 맺은 대구광역시 사례는 귀감(鑰鑰)이다. 어떻게든 도시에 나무를 심어 숲을 늘려야 한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한 도시를 물려주는 것, 바로 우리의 의무 아니겠는가.

은폐칼럼



강대석 시인·행정학 박사

지난달 19일 일본의 교토 류코쿠 대학(龍谷大學)에서 '수은 강항 선생 국제 학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일본 강항 선생 연구회'와 '한국 강항 선생 기념 사업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어 한국 측에서 광주 유림과 학계, 관련 단체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앞서 들른 곳이 교토의 코무덤(鼻塚)과 풍국신사(豊國神社)였다.

422년 전 정유재란 시 원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자 왜군은 해상 방어망을 뚫고 순천·광양·구례를 거쳐 남원성을 점령한 뒤 영호남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이때 풍신수길(豊臣秀吉)은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왜장들에게 "사람의 귀는 돌이요, 코는 하나이므로 머리 대신 코를 잘라 바치라"고 명령했다. 이에 왜장들

교토의 코무덤(鼻塚)과 일본

은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조선 백성들의 코를 다치는 대로 베어갔다. 심지어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까지도 가리지 않고 코를 베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왜군들은 베어진 코를 모아 나무궤짝에 1000개씩 넣어 소금이나 식초 등으로 절인 후 일본으로 보내면 풍신수길은 그 수를 일일이 확인한 후 코영수증을 써주고 왜장들에게 치하장을 보내 주었다. 이러한 코 베기 만행은 1597년 8월부터 1598년 11월 왜군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얼마나 잔학했으면 지금까지도 어린애들이 울 때 '안그치면 이비아가잡아 간다'라고 전해 오겠는가? 이 이비야(耳鼻爺)가 바로 정유재란시 코와 귀를 베어가던 왜군을 지칭하는 말로 무서움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다.

정유재란 시 일본에 보내진 코는 대략 12만 6000개로 교토의 풍국신사 앞에 묻혀 있다. 처음엔 코무덤(鼻塚)이라 불렀으나 막부시대 일본의 유학자 하야시라잔(林羅山)이 코무덤은 너무 잔인하므로 귀무덤(耳塚)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하여 귀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수은 강항 선생이 쓴 간략록에 의하면

1598년 체류 당시 조성된 코무덤은 새로운 산이 하나 생긴 듯 그 높이가 예랑산(愛孃山)의 산허리와 같았다고 한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왜인들 몰래 십시일반으로 쌀을 모아 코무덤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문을 부탁하자 강항 선생은 "베어진 코는 서쪽 언덕에 묻혀있고, 큰 뱀 수길은 동쪽에 묻혀 있네, 수길의 몸은 소금에 절여서 악취를 풍길 뿐이로다.(有鼻西時, 修蛇東藏, 巴藏藏蛇魚, 不香之語也)"라고 적어 주었다. 그것은 풍신수길이가 1598년 8월 병으로 죽자 그의 부하들이 풍신수길의 죽음을 숨기려고 그의 뱃속에 소금을 넣어 한 달간이나 앓혀 두었던 것을 빗댄 것이었다. 포로 생활 중에도 꺾이지 않은 선비의 기개와 저항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우리가 찾아간 코무덤에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장마뿔 한 달발이 유월의 햇빛 아래 외롭게 서있고 있었다. 낮선 아국땅에 묻혀 400년의 세월을 보낸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오늘날 일본의 행태를 보면 임진왜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일

본인 오카야마 젠 이치로(岡山善一郎) 전 천리대학 교수는 "강항 선생이 일본에 있을 때 포로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 편히 지내다 일본인들의 배려로 무사히 귀국했다"며 "강항 선생은 진사과에 합격한 문인일 뿐 유학자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망언을 했다. 이러한 망언의 이면에는 일본인은 포로들에게도 관대한 인도적인 민족이며, 일본 유학은 포로 강항에 의해 전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아들였다는 논지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가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사회를 안 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하여 경제 보복으로 대하듯 자기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였다. 강항 선생에 의한 일본 유학의 전수 사실이 제자인 왜승 후지와라 세이카(藤原盛高)의 각종 문집과 강항 선생이 일본에 남긴 강항 휘초 21권의 발문 등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왜곡하고 자기를 스스로 연구 발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일본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서로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과거를 청산할 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기 고

'축적의 길'과 교육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흔히 어느 조직의 리더가 바뀌면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내세워 뭔가 새로운 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 다만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성과나 가치, 실패 등을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소중한 자산으로 삼지 못하고 차별화에만 골몰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곤란하다. 이렇다 보면 정책이 사람에 따라 앞차라뒤차라해질 개인성이 크다. 이는 축적이 아니라 단절이다. 사고나 재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슷한 사고나 재난을 반복해서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분노의 목소리만 높이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다. 동일한 인재(人財)가 반복되는 경우, 그 사회 구성원들은 분노할 자격조차 없으며 한 재난 전문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결코 원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소중한 자산을 헛되이 한 결과니까.

도구나 제도가 불안전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사람의 수행 능력까지 모두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보완과 개선의 문제이다. 결국 축적의 길은 '사람'의 문제이고 축적의 반복을 통해 더 큰 축적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도 그러하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단위 시간마다 개인의 축적된 역량이 다 큰 축적된 역량과 만나고 부딪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러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평생 배움에 도전하며 스스로 지식과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기본이 되는 지식이 없으면 창의성도 없다는 말은 크게 들어야 한다. 개인이든 사회든 해당 분야의 고도로 축적된 지식이 곧 위대한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그렇다고 단순 지식 교육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자칫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창의성 그 자체만을 강조하거나, 엄청난 인공 지능의 위력을 상징하고 기초·기본 교육마저 소홀히 하지 않



김훈식 광주 일동중 교장

누런은 '내가 많은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과학적 발견이나 성과뿐만이 아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역량을 합리적으로 모으는 것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솔한 시행착오조차도 잘 정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뉴턴처럼 거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더 큰 행운이다. 공식적, 통시적인 축적의 환경과 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때 '축적 지향의 리더십'이 온전히 발휘된다면 조직이 지닌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혁신적 변화를

기를 바라는 말이다. 또한 축적은 나눔을 전제로 한다. 축적된 교육적 성과를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도구나 장치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콘텐츠다'라는 생각으로 구축한 광주시교육청의 수업 나눔 플랫폼(t-tube.net)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마련한 것이다. 결국 개인이나 사회, 국가 모두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 하나로 간접적인 교훈을 삼았으면 한다. 마법으로 사랑을 시러 했다가 그 누구도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했던 마녀 메데아! 그가 테세우스에게 배신당한 아리아드네의 사례를 잘 알았더라면 한 남자를 얻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동생을 죽이며, 남을 위해 복수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이들까지 죽이는 비극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새로운만 꿈꾸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탄탄한 축적에서 위대한 길을 찾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행보를 기대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 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무 국 220-0551 FAX 220-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